

# ‘철거 위기’ 세계 최대 울돌목 조류발전소 재가동

### 진도군, 경관 개선·사고 위험 제거 조건 연장 허가

### 한국해기원 2018년까지 260억 들여 2차 프로젝트

진도군과 갈등으로 철거위기를 맞았던 울돌목 조류(潮流)발전소가 다시 가동된다. 조류발전소는 빠른 물살과 간만의 차 등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다.

전남도는 “해남과 진도를 잇는 울돌목에 설치된 조류발전소가 진도군의 공유수면 사용 연장조치에 따라

2018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해 10월, 5년간의 사용기간이 만료됐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사업 시행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경관 개선·안전사고 위험 제거 등 조건을 합의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울돌목을 가로질러 설치된 이 발전소(500kW급 2기)는 지난 2005년 착공, 4년여 공사 끝에 2009년 5월 완공됐다.

수면위 발전시설을 포함해 가로 16m, 세로 36m, 높이 48m에 무게만 1000t 규모로 세계 최대다. 울돌목은 해협 폭이 300여m로 유속이 초당 4.8~6.2m로 국내 해협 중 가장 물살이 빠른 곳 중 하나다.

울돌목 발전소는 400여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1000kW급)로 시험운영 뒤 증설을 거쳐 올해부터 9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조류발전소 실용화 용역결과 기술 우수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해상안전사고 위험, 녹진 관광지 경관 저해, 주민반발 등이 일면서 진도군이 연장을 불허했다.

앞서 전남도도 발전소 철거 지시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제2차 국책사업인 능동제어형 기술개발(260억원) 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사용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물 태풍피해복구 ▲고장 발전기 수리 ▲외관경관 복구 등을 약속, 사용 연장을 이끌어냈다.

한편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은 물의 방향, 유속변화, 유속량 강화 제어기법 등을 통해 적용 범위가 넓은 조류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평가 및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여수 거문도로 봄맞이 오세요

### 시, 여행사 대표 펌투어

“다도해의 보석” 여수 거문도로 봄맞이 오세요!” 여수시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수도권 여행사 대표 20명을 초청해 거문도 펌투어 행사를 가졌다.

행사 첫날 방문단 일행은 거문도 수월산 등대와 동백림 터널을 둘러봤다.

이튿날에는 유람선을 타고 거문도 바다 일원을 일주하며 서도해양공원과 녹산산대 등 트레킹 코스 체험을 한데 이어 영국군 묘지와 어관장 등 주요 관광지도 둘러봤다.

이들 여행사 대표들은 앞으로 거문도와 남도의 아름다움을 접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동도·서도·고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된 거문도는 여수에서 남쪽으로 115km 떨어져 있으며,

다도해의 드넓은 바다 위에 병풍을 친 듯한 풍채를 자랑한다.

특히 백도와 더불어 지난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3위와 ‘호남 최고 인기 관광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시가 단체관광객 성과보수 제공 시책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2개 관광사에서 372명의 관광객을 모집해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 서울·경기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박람회 참가해 유류오염 사고로 타격을 입은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세계박람회 계기로 함로 확대와 운임 할인 등 경쟁력을 갖춘 거문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 ‘현대판 모세 기적’

### 진도 신비 바닷길 내달 1~2일 열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다음달 1~2일 이틀간 열린다.

진도군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 사이에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길이 2.8km, 폭 40~60m의 바닷길이 열리는 이 기간에 ‘제3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프레 이벤트’를 준비했다.

다음달 2일 오전 5시 50분 일본의 관광객 40여 명 등 외국인 100여 명이 횡단을 들고 신비의 바닷길을 건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와 진도아리랑, 진도복놀이 등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토속민속 공연도 연다.

천연기념물 진돗개 공연과 묘기 자랑도 바닷길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3월 1일 오후 5시 40분, 2일 오전 5시 50분과 저녁 6시다.

군은 국내외 관광객 5000여 명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보고자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3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풍년 기원 달집 태우기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성군 노동면 주민들이 지난 13일 노동초등학교에서 풍년농사와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달집 태우기를 하고 있다. 울어면에서도 풍년 기원제와 함께 셋굿 재현행사가 열렸다. <보성군 제공>

## 목포 북항 일원 친환경 시민공원 조성

### 생태복원사업 국비 5억5000만원 지원 받아

목포시가 북항동 일원을 친환경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

목포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복원사업인 ‘도심 생태숲 조성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됨에 따라 북항동 신안비치 아파트와 목포해양경찰서 사이에 위치한 내대지 1만3000여㎡를 대상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죽고동 택지개발사업 계획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맹꽁이 서식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인근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무단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목포시는 이곳을 녹지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허파기능을

하고, 생태계·생물종 등의 보전 및 복원으로 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국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해 이곳에 다양한 수종으로 완충수림대를 조성하고, 생태 연못과 수로·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시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민 참여 숲을 비롯해 관찰 데

크, 생태해설관 등 도시 녹지공간을 마련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삶의 여유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곳에 자연녹지 생태공간이 조성되면 북항 정비 계획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친수 문화공간과 어우러져 유동인구를 확보해 원도심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순천만 정원-자연생태공원 통합 운영

### 운영조례 시의회 통과

국내 최초 정원 축제인 ‘국제 정원 박람회’ 현장인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통합 운영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가 제182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순천만의 가치를 높이며 동시에 순천만 보전,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효율적 운영, 관람료 징수 단일화로 관람객 편의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람료는 성인 기준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 1

년권 5만원이다.

순천시민에게는 개인 관람료의 50%를 할인해 주며, 아침·저녁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표 전후 시간을 정해 무료로 개방한다.

또 순천시민에게 1년권을 1만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현장인 정원박람회장의 이름을 ‘순천만 정원’으로 변경했다”며 “오는 4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가 한창이다”고 밝혔다.순천=예정희기자 yjy@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구179.43평) 분할 가능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 (구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 / 216.87㎡ / 582.45㎡
5층	아스터리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 등록되었습니다

단비플라워

축화원3단 근조화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